



(미국사무소, 2026 April)

## 1 과학기술 R&D · ICT 연구 동향

### 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#### □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, 초대형 행성 형성 방식 규명

- 미국 항공우주국(NASA)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(JWST)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초대형 행성의 형성 방식이 밝혀졌음.
- 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재된 해당 연구에서는 목성 질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외계행성 ‘29 Cygni b’ 를 관측했음.
- 분석 결과, 이 행성은 작은 입자들이 점차 뭉쳐 성장하 ‘하향식 축적(accretion)’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특히 탄소와 산소 등 무거운 원소가 확인되어, 이 행성이 일반 행성과 유사한 형성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함. 이는 일부 초대형 천체가 별처럼 형성된다는 기존 가설과 대비되는 결과임.
- 연구진은 행성 형성 원반 내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, 거대 행성의 형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4-webb-redefines-line-planets-stars.html>

#### □ 실리콘 호환 소재를 활용한 양자 소자 개발

- 미국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(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) 연구진이 실리콘 기반 양자 소자 개발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둠.
- 해당 연구는 미 에너지부 산하 양자 연구센터(C2QA, Co-design Center for Quantum Advantage)에서 수행되었으며, Nano Letters에 게재되었음.
- 연구진은 실리콘과 호환되는 소재인 전이 금속 실리사이드(silicides)를 활용해 SQUID(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)를 제작했음.

- 이는 기존 반도체 공정과의 호환성을 확보한 양자 소자 제작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.
- 현재 다수의 양자비트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초전도 물질을 사용해 제작되지만,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생산에 한계가 있음.
- 이번 성과는 실험실 단계를 넘어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.
- 연구진은 기존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양자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4-silicon-compatible-path-scalable-quantum.html>

## □ 전자소자 3D 프린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기술

- 라이스대학교(Rice University) 연구진이 전자소자 3D 프린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음.
- 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집중된 마이크로파를 활용해 전자 잉크만 선택적으로 가열하는 공정을 제시했음.
- 기존에는 전자 잉크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주변 소재까지 손상되는 문제가 있어, 전자소자 3D 프린팅의 상용화와 확장에 큰 제약이 있었음.
- 새 기술은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매우 좁은 영역에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집중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며, 이를 통해 전자 잉크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변 구조물은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.
- 연구진은 해당 기술이 전자적·기계적 특성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자유형 구조 제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음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4-3d-electronics-focused-microwaves-redefines.html>

## □ 미 NIST, 지문 감식 정확도 향상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개발

-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(NIST)이 지문 감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음.
- NIST는 약 1만 개 규모의 지문 데이터에 상세한 주석을 추가해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.
- 해당 데이터는 인간 감식관뿐 아니라 AI 기반 지문 분석 도구의 학습에도 활용될 예정임.
- 또한 지문 품질을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

함께 공개하였는데, 감식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NIST는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법과학 분야의 신뢰성과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

※ <https://www.nist.gov/news-events/news/2026/03/nist-helps-fingerprint-examiners-new-data-and-software-release>

## □ 저소득층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저비용 치료 모델

- 미국 국립보건연구원(NIH) 지원 임상시험을 통해 저소득층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저비용 치료 모델이 개발되었음.
- 이번 연구는 연방 인증 보건센터(FQHC)에서 팀 기반 의료 전략을 적용해 수행되었음.
- 프로그램에는 혈압 집중 관리, 지속적 모니터링, 의료진 피드백, 생활 습관 코칭, 약물 복용 관리 등이 포함되었음.
-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과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,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.
-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 약 4명 중 1명만 혈압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, 특히 저소득층은 유병률이 높고 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
- 연구진은 이번 모델이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공중보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음.

※ <https://www.nih.gov/news-events/news-releases/low-cost-care-model-reduces-blood-pressure-high-risk-populations>

## 2) 인문 · 사회분야

### □ 기업의 복잡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AI 분석 모델

- 텍사스 오스틴대학교(University of Texas at Austin) 연구진이 기업의 복잡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반 분석 모델을 개발했음
- The Accounting Review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투자자와 규제 당국이 기업의 구조와 재무 상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
- 새 모델은 AI를 활용해 운영, 위험, 재무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

- 특히 부채 구조와 관련해서는 복잡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, 일부 경우에는 위험관리와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됨
- 연구진은 기업 복잡성을 부채, 파생상품, 세금, 수익, 보상 등 29개 세부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도록 설계했음

※ [https://news.mcombs.utexas.edu/research/its-complicated-ai-measures-business-complexity/?utm\\_source=chatgpt.com](https://news.mcombs.utexas.edu/research/its-complicated-ai-measures-business-complexity/?utm_source=chatgpt.com)

## □ 일상적 사회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AI 기반 연구

- 카네기멜런대학교 등 공동 연구진이 일상적 사회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AI 기반 연구를 발표했다.
- Psychological Science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약 2만 건의 대인 상호작용 텍스트를 분석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의 구조를 분류했음.
- 연구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상호작용을 여러 특징으로 코드화하고 유형별로 체계화했으며, 이를 통해 갈등, 권력, 의무 등 핵심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구축했음.
- 기존에는 사회적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통합적 분석이 어려웠음.
- 이번 연구는 데이터 기반으로 일상적 사회 상황을 정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연구진은 이러한 방법이 사회 인지와 인간 행동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4-ai-everyday-interactions-reveal-social.html>

## □ 미국 내 추방 및 거리 체포 건수 최근 급증

- UCLA와 UC 버클리 공동 연구진은 미국 내 추방 및 거리 체포 건수가 최근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Deportation Data Project에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,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째 추방 건수가 5배 증가했음.
-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체포·구금·추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음.
- 연구진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의 이민 단속을 비교했는데, LA, 시카고, 미네아폴리스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으며, 전국적으로도 증가세가 확인됐음.
- 연구진은 특정 도시 집중이 아닌 전국적 단속 강화가 특징이라고

분석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4-deportations-street-risen-exponentially.html>

#### □ 확률과 무작위성 설명 ‘볼츠만 분포’의 재해석

- 프린스턴대학교 등 공동 연구진이 확률과 무작위성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인 ‘볼츠만 분포’ (Boltzmann distribution)의 적용 범위를 재해석한 연구를 발표했다.
- Mathematische Annalen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상태 확률을 설명하는 이론을 다루고 있음.
- 연구진은 개별 요소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, 전체 시스템의 거시적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음.
- 연구 결과, 볼츠만 분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‘독립적 시스템’에 특히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, 이는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어 온 기존 이론의 전제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임.
- 해당 개념은 물리학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경제학에서도 ‘다항 로짓 모델’ (multinomial logit model)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.

※ <https://scitechdaily.com/crazy-dice-help-scientists-prove-only-one-150-year-old-theory-about-randomness-works/>

#### □ 아메리카 인류 최초 정착 시기 차이 가능성

- 와이오밍대학교가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아메리카 최초 인류 정착 시기에 대한 기존 학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음.
- Science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남부의 대표적 고고학 유적지인 몬테 베르데(Monte Verde)의 연대를 재분석했음.
- 기존 학설에서는 해당 유적의 연대를 약 1만 4,500년 전으로 추정하며, 아메리카 초기 인류 정착의 핵심 근거로 간주해 왔음.
- 그러나 이번 연구는 유적의 실제 연대가 약 4,200~8,200년 전일 가능성을 제시했음.
- 이는 북미 클로비스 문화 이전에 남미에 인류가 정착했다는 기존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임.

※ <https://scitechdaily.com/did-we-get-it-wrong-new-study-challenges-timeline-of-first-americans/>

## 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### □ 미 연방정부 대학 과학 · 공학(S&E) 지원 현황 공개

- 미국 연방정부의 국내 대학 과학 · 공학(S&E) 분야 지원 규모와 지역별 분포가 공개됐음.
- 국립과학재단(NSF) 산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(NCSES) 조사에 따르면, 2023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는 총 490억 달러를 1,110개 대학에 지원했으며, 이 중 연구개발(R&D) 지원금이 4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음.
-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, 뉴욕, 메릴랜드, 텍사스,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 전체의 37.8%에 해당하는 185억 달러가 집중 지원됐음.
- 이들 주는 인구 규모가 크고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.

※ <https://ncses.nsf.gov/pubs/nsf26318>

## □ 트럼프 행정부 NIH 간접비 제한 정책 법원 판결 유지

-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보건연구원(NIH) 간접비 제한 정책에 대한 항소 기한을 넘기면서, 해당 정책을 중단시킨 법원 판결이 유지되었음.
- 이에 따라 대학 연구비의 간접비를 15%로 제한하려던 정책은 당분간 시행되지 않게 되었음.
- 간접비는 시설 유지, IT 인프라, 행정 지원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을 의미, 현재 미국 대학의 연구 간접비 비율은 약 30~70%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.
- 정부는 NIH뿐 아니라 에너지부, 국립과학재단(NSF), 국방부에도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려 했으나, 모두 법원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.
- 법원 판결 이후 관련 기관들은 해당 정책을 철회했으며, 2026 회계연도 예산법에서도 간접비 정책 변경이 제한된 상태임.

※ <https://www.aip.org/newsletter/0000019d-8764-d717-adbf-efecc375000a>

## □ 미 NSF, 대학원 연구장학생 2,500명 선발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2026~2027학년도 대학원 연구장학생 (Graduate Research Fellowships, GRFP) 2,500명을 선발했음.
- 선발 대상은 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(STEM) 분야의 연구 중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, 이번 선발에는 전국에서 약 1만 4,00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.
- GRFP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됨.
- 선발 기준은 학문적 우수성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, 선발된 학생들은 5년 중 최대 3년간 재정 지원을 받게 됨.
- NSF는 GRFP 프로그램이 75년 이상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음.

※ <https://www.nsf.gov/news/nsf-announces-2026-graduate-research-fellowship-program>

## □ 미 NSF, 전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 추진

- 미국 국립과학재단(NSF)이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‘AI-Ready America’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.
-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, 기업, 지역사회 전반이 AI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NSF는 이를 위해 AI 교육, 도구, 훈련, 역량 구축을 확대하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
- 초기 단계로 전국 모든 주와 지역에 ‘AI 준비 허브(AI Readiness Hub)’ 를 구축할 계획임.
- 이번 사업은 백악관의 AI 정책 방향에 부합해 국가 차원의 AI 역량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, 주요 과제로는 노동자의 AI 역량 강화,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AI 도입 지원, 실습 중심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됨.
- NSF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AI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※ <https://www.nsf.gov/news/nsf-initiative-aims-make-every-american-worker-business>

## □ 미국 과학 외교 약화로 과학 리더십 상실 경고

- 과학 외교 전문가가 미국이 과학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했다.
- 김벌리 몽고메리는 미국과학진흥협회(AAAS)에 기고한 글에서, 미국의 과학 외교 약화가 글로벌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.
- 그는 국제 협력 축소와 연구 투자 정책 변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.
- 또한 미국이 기후 및 과학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등 협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.
-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과학 협력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.
- 과학 외교는 기후변화, 보건, 안보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sciencediplomacy.org/editorial/2026/listen-alarms-united-states-forfeiting-its-scientific-leadership>

## 2) 인문 · 사회분야

### □ 미국 과학계, 트럼프 행정부 연구 예산 삭감안 강력 반발

- 미국 과학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2027 회계연도 연구 예산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.
  - 미국대학협회(AAU,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)는 국립보건연구원(NIH)과 국립과학재단(NSF) 등 주요 연구기관의 예산 삭감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음.
  - 협회는 특히 중국의 연구개발(R&D) 투자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번 삭감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
  - 정부는 NSF 예산을 약 54% 삭감하고, 사회·행동·경제과학국 폐지와 함께 국립항공우주국(NASA) 과학 예산도 약 50% 감축할 것을 요구했음.
  - 이에 대해 일부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우주 연구, 과학 인력 양성,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.
  - 과학계와 관련 단체들은 연구비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서한 발송 운동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aip.org/newsletter/0000019d-8764-d717-adbf-efecc375000a>

### □ 美 정치학회(APSA) NSF 사회행동경제국 폐쇄에 대한 성명서 발표

- 미 정치학회(APSA)는 NSF 사회행동경제국(Directorate for Social, Behavioral and Economic Sciences) 예산 전액삭감 및 폐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함
  - NSF의 SBE는 미국내 모든 사회과학 및 심리학 학술연구비의 63%를 지원하는 상황에서, SBE국의 해체는 정치학분야 연구자, 학생뿐만이 아니라, 미국 연구계 전반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포함
  - 정치학회는 NSF 지도부에 SBE 지원과 예산 유지를 촉구하였으며, 미 의회가 이번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함

※ <https://politicalsciencenow.com/update-on-proposed-dissolution-of-sbe-directorate-at-the-national-science-foundation-nsf/>

## □ 트럼프, 대형 기념물 건설에 NEH 예산 동원 추진

-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인문기금(NEH) 예산을 활용해 대형 기념물(개선문)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- 백악관은 링컨기념관 인근에 대형 아치형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 총 1,5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.
- 해당 사업이 인문·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NEH 예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.
- 이번 계획은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평가됨.
-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민간 자금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바 있음.
- 그는 2기 취임 이후 기념물 건설을 포함한 각종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,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개선문 설계도를 공개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음.

※ <https://www.notus.org/donald-trump/trump-arch-taxpayer-funds>

## □ 주택·에너지·교통 인프라 정책 연구 협력 플랫폼 BUILD

- 주택·에너지·교통 인프라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협력 플랫폼 ‘BUILD Research Network’가 주목받고 있음.
- 이 네트워크는 비당파적 연구자 그룹으로, 국가 정책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며, 주택 공급, 에너지 전환, 교통 인프라를 핵심 연구 분야로 설정했음.
- BUILD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정책결정자 및 투자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.
- 또한 데이터셋과 정책 브리프 등 공공 활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음.
- 더불어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가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.
- 아울러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위해 교육, 멘토링,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ssrc.org/programs/build-research-network/>

## □ 미 NSF, 디지털 시대 아동 안전 • 교육 연구 제안 공모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디지털 시대 아동의 안전과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제안 공모를 발표했다.
-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(AI)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아동의 학습, 성장, 복지를 지원하는 연구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음.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.
- 또한 아동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를 핵심 목표로 포함하고 있으며, 교사·부모·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짐.
- 디지털 기술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디지털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됨.
- NSF는 관련 연구자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, 다양한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.

※ <https://www.nsf.gov/funding/opportunities/dcl-empowering-educating-children-thrive-digital-era>

## 3 벤처·기술사업화 동향

### □ 트럼프 중소기업 혁신연구(SBIR) 재승인 법안 서명

-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음.
-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 혁신연구(SBIR)와 중소기업 기술이전(STTR) 프로그램을 2031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중소기업청(SBA)은 법안 시행에 따라 첨단기술 스타트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, 특히 인공지능(AI), 첨단 제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음.
- 정부는 이번 법안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※ <https://www.executivegov.com/articles/trump-signs-sbir-sttr-reauthorization-bill>

## □ 미 연방정부 지원 개발 기술의 소유 및 보고 체계

- 미 연방 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과 보고 체계를 분석·평가한 보고서가 발표됐음.
- 정부회계감사원(GAO) 보고서에 따르면,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은 의약품, 국방, 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천 건의 발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미 의회는 공공 이익을 고려해 연구비 수혜 기관이 발명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대학, 중소기업, 비영리기관 등 연구비 수혜자들은 대부분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음.
- 다만 수혜자는 발명을 정부에 신고하고 상용화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, 이 과정에서 기관과 정부 모두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 기반 보고 시스템의 확대를 제안했음.

※ <https://www.gao.gov/products/gao-26-107971>

## □ 시카고대, 글로벌 기업들과 AI 스타트업 지원 협력

- 미 시카고대학교가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.
- 이번 협력에는 마이크로소프트(Microsoft), 엔비디아(NVIDIA) 등 주요 기술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음.
- 프로그램은 AI 스타트업의 발굴과 성장을 목표로 하며,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5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및 기술 크레딧이 제공됨.
- 또한 AI 모델 활용 지원, 기술 자문, 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과 함께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‘Inception’ 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임.
- 아울러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시카고대 학생 인턴십 지원도 포함됨.

※ <https://polsky.uchicago.edu/2026/04/14/university-of-chicago-announces-partnership-with-ai-research-commons-microsoft-nvidia-to-accelerate-midwest-ai-startups>

## □ 미 정부, AI 전력 수요 대응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

- 미 에너지부와 상무부가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.
- 이번 사업은 소프트뱅크(SoftBank)와 AEP 오하이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, 오하이오 남부 에너지부 소유 부지를 재개발해 에너지 인프라와 첨단 컴퓨팅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.
- 소프트뱅크 계열사 SB 에너지는 총 10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, 이 중 9.2GW는 천연가스 기반 발전으로 지역 전력망과 연결됨.
-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전기요금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,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articles/energy-department-announces-partnership-ensure-affordable-energy-and-power-americas-ai>

## □ 엔트로픽 최대 8,000억 달러 가치 평가 투자 제안

- AI 스타트업 엔트로픽(Anthropic)이 최대 8,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로 평가되는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는 현재 기업가치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, AI 산업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.
- 엔트로픽은 올해 2월 약 3,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진행했으며, 연내 기업공개(IPO)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.
- 주력 AI 모델 ‘클로드(Claude)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간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.
- 또한 최근 자율적 작업 수행 능력을 강화한 신규 모델 ‘미토스(Mythos)’를 공개했음.
- 전문가들은 해당 모델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탐지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음.

※ <https://www.reuters.com/legal/transactional/anthropic-draws-offers-vcs-invest-up-800-billion-valuation-business-insider-2026-04-14/>